

어떻게 자신에게 적합한 양로기구를 선택할까?

최근, 중공중앙과 국무원에서 출범한 <양로봉사 개혁 발전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은 양로기구 분류 개혁을 추진하여 양로기구를 최저보장형, 일반혜택지원형, 완전시장형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급후 로인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적합한 양로기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양로봉사 개혁 발전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최저보장형 양로기구는 주로 극빈 로인과 경제 곤란, 능력 상실 로인 등을 수용한다.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는 전체 로인들을 대상으로 개방하며 구를 설치한 시급 정부가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비용 관리를 강화한다. 완전시장형 양로기구는 충분한 경쟁을 실시하고 우수한 품질과 우수한 가격을 실시하여 로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킨다.

민정부 양로봉사 부사장 리방화는 “우리는 보통 양로기구를 민영화와 공립 혹은 대중소형으로 분류했는데 봉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양로기구를 최저보장형, 일반혜택지원형, 완전시장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면 기능이 한층 더 구분되고 봉사 공급도 더 정밀해지며 정책조치도 더욱 명확해진다. 따라서 최저를 보장하고 수요에 봉사하며 편혜택에 공급이 있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봉사 구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극빈로인이 양로할 수 있는 최저보장형 양로기구

3가지 유형의 양로기구에서 최저보장형 양로기구는 주로 정부가 계획에 따라 건설하고 공급하는데 이번 의견은 최저보장형 양로기구의 주요 수거 대상은 극빈로인과 경제 곤란 및 능력 상실 로인임을 명확히 했다. 음력설 기간 절강성 령청현사회복지원은 입주하고 있는 로인들을 위해 ‘복’자 쓰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배치했다. 현재 이곳에 입주한 다수는 극빈로인들이며 입주 비용은 정부가 최저를 보장한다. 령청현사회복지원은 과거에 일반혜택형 양로기구는 지난해에 승격, 개조를 거쳐 최저보장형 양로기구로 전환되었으며 전 현 극빈로인들의 집중부양을 담당, 일반 사회 로인들의 입주를 중단했다.

덕청현민정국 당위 위원이며 부국장인 문기위는 “이전에 향진 양로기



관에 각각 흩어져있던 이런 극빈로인들을 사회복지원에 집중적으로 옮겨 부양한다. 사회복지원은 상대적으로 부대시설이 좋아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돌봄이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전에 일부 양로기구는 수년간 대기해야 입주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대부분 일반 로인들이 맹목적으로 최저보장형 양로기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현(구)에는 적어도 한개의 최저보장형 양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조건에 부합되는 극빈 및 중증 능력 상실 로인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양로기구는 비용을 정부에서 정하며 로인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로나 저가로 입주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저보장형 양로기구의 정부 복지 속성에 비추어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곳에는 룰번 대기(轮候)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심수를 레로 들면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은 공립 양로기구 룰번 대기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극빈 저소득 및 사회에 중대한 공헌이 있는 로인은 1개월내에 입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이상의 능력 상실 로인은 3개월내에 입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혜택지원형, 전체 로인을 대상으로 개방

최저보장형 양로기구는 비록 비용이 비교적 낮지만 극빈로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대다수 로인들은 일반혜택형 양로기구를 선택한다. 3가지 유형

의 양로기구에서 일반혜택형 양로기구의 수량이 가장 많다.

심수양로간호원(深圳养老机构)은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로 총 800개의 침상이 있다. 올해 86세인 류숙영로인과 남편은 여러 양로기구를 돌아보고 나서 이곳에 입주하기로 했다. 원인은 이곳의 가격 대비 성능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류숙영은 “우리는 여러 양로기관을 돌아보았는데 고급스러운 것도 있었다. 비용이 보통 2, 3만원이어서 조금은 부담이 되었다. 여기는 지금 두명 이서 한달에 1만 2,000원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심수 관련 부문의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의 매월 최고 비용은 주민의 전년도 월 1인당 가처분소득의 1.3배에서 1.5배보다 높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데 현재 심수의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의 매월 평균 비용은 7,000원 정도이다.

침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로 현재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는 능력과 기능 상실 등 강성 수요의 로인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심수시양로간호원 부원장 왕원원은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로서 주로 중증 능력 및 기능 상실 로인과 재활 및 요양이 필요한 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정부 재정 보조금을 받고 있다. 평균 가격은 매달 4,000원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완전시장형으로 로인들의 다양한 수요 만족시켜

3가지 유형의 양로기구중 하나는 완전시장형 양로기구이다. 이런 류

형의 양로기구는 주로 개성화, 고품질의 양로생활을 추구하며 상응한 경제력을 갖춘 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북경에서 80여세의 왕광성로인은 2환 부근에 위치한 양로기구를 선택했다. 이곳은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고 우수한 3급 갑등 병원과도 가깝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로인은 “이곳은 북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이 동네에서 계속 살다 보니 주거환경과 주변 병원들을 익숙히 알고 있고 원래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여기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로인은 현재 매달 이 양로기구에 1만여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주로 그의 퇴직금과 주택을 임대한 수입으로 지불한다고 언급했다. 양로기구의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매우 높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조건이 되는 로인들이 이러한 고급 양로기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리숙금과 그의 배우자가 매달 이런 양로기구에 쓰는 비용만 3만원이 넘는다.

북경 시민 리숙금은 “이 건물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방을 선택했다. 나는 더 많은 비용을 내더라도 내 삶의 기준을 낮추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용이 높은 양로기구는 자주 의문을 받아왔다. 그러나 <양로봉사 개혁 발전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은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시장주체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양로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민정부 등 여러 부문에서 령합으로 발표한 <양로봉사를 가일층 촉진하여 로인들의 생활 품질을 제고할 데 관한 조치>도 법에 따라 로년아빠트와 양로사회구역을 건설하도록 권장했다. 이런 정책과 조치들은 여러 시장주체들이 양로봉사에 투입하는데 보장을 제공했다.

북경의 한 양로기구 책임자 리훤은 “초기에 이런 양로기구를 설립할 때는 주로 탐색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의견>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양로기구의 분류가 명확해졌고 특히 고품질 양로기구에 더 큰 발전 공간을 제공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신화사

최근 로인들 독감 특히 조심해야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 강풍과 한파 발생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북경우안병원 감염중합과 주임의사 리동중은 독감바이러스는 “추위를 좋아하고 더위에 약하다.”며 한파 날씨에는 독감 전파 위험이 증가하기에 제때에 환기하고 제때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했다.

리동중은 한파 날씨에는 독감 전파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여전히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대중은 밀폐된 곳이거나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집에서 매일 2~3회 창문을 열

어 환기를 시키고 매번 15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추위는 저항력을 떨어뜨리기 쉬우므로 머리와 목, 발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료해에 따르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주간 우리 나라 남방의 응급실 환자중 독감 류사 사례의 비율이 전주보다 높았고 2022년부터 2024년 같은 기간 수준보다 높았다.

한파 기간 사람들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 더 쉽게 모이게 되는데 이로부터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증가한다. 리동중은 추위와 건조함이 호흡기 점막의 장벽 기능을 약화시키고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인민넷 - 조문판

‘연길 로병사의 집’ 행복나눔 행사로 정월대보름 맞이



2월 8일, ‘연길 로병사의 집’에서는 정월대보름에 즈음하여 15명의 로병사와 6명의 려사유가족을 모시고 정월대보름 ‘행복나눔’ 행사를 조직했다.

음력설후 한자리에 모인 로병사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전하고 음력설 기간에 받은 위문이며 온 가족이 함께 음력설을 보냈던 일들을 공유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어서 로병사와 려사유가족들은 저마다 장기자랑을 펼쳤다. 로병사들은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을 씩씩하고 힘차게 부르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다.

로병사 부경귀는 군복무 시절에 취사반에서 익혔던 솜씨를

뽐내며 음식 준비를 돕는 한편 옛날 취사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했다.

려사유가족들은 군인들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로병사들에게 보내는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로병사들이 행복한 로후를 누리면서 오래오래 앓을 것을 축복했다.

올해 97세인 함미원조 3등 공신 랑생숙은 식사를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때면 전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이 더 생각난다. 친인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인사를 올린다.”며 눈물이 글썽한 채 겨우겨우를 울렸다.

/ 박철원특약기자

2021년부터 꼬박 4년 동안 병원에서 뇌졸중과 싸워온 원 료병성 무순시 신민현 부현장 조만선(93세) 로인이 지난 1월 19일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추도식에서 50여명 친척들과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로인과 고별했다. 조만선로인의 양아들 심덕주는 필자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한명씩 있었는데요 고아인 저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목이 메어 더 말을 잊지 못했다.

1932년 3월, 김립성 집안현(지금의 집안시) 구재원촌에서 태어난 조만선은 어린시절 부모를 여의고 사처로 류리결식하다가 료병성 신민현 왕청문공사(旺淸門公社, 1983년 향으로 고쳤다가 1985년에 진으로 고쳤음)에 정착했다. 재진 가난으로 조만선은 겨우 소학교를 졸업했지만 끈질긴 노력과 탄탄한 실력으로 공사 공청단 서기, 향장, 현공안국 국장, 부현장 겸 공상국 국장으로 사업하면서 신민현 우수공산당원, 차세대사업관심 특별상, 전국 조선족 5호가정 등 영예를 받았다. 특히 1964년 9월에는 32세 젊은 나이에 국경 15주년 경축 활동에 참가하여 모택동, 류소기, 주뎡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접견을 받고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영예도 지냈다.

개혁개방후 많은 사람들이 퇴직후 인생가치의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

어져 자기만의 안일한 생활을 추구할 때 조만선은 그렇지 않았다.

1992년 3월, 장장 40여년의 공무생활을 마친 조만선은 신민현공상국에서 정년퇴직을 했다. 집에서 며칠 쉬고 난 어느 날, 많은 조선족들이 조만선이 퇴직하고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 자기들도 돈을 벌어서 살고 싶은데 조현장이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조현장, 우리는 한국으로 로무를 가고 싶는데 좀 알선해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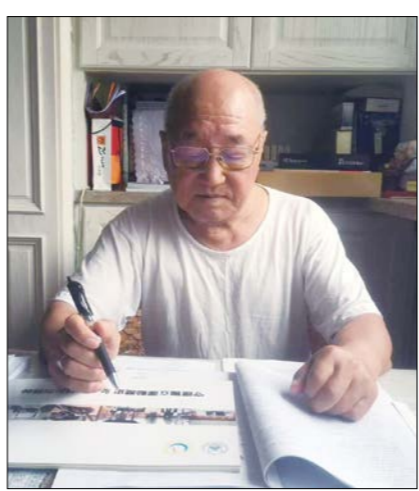
“조현장, 장사를 하고 싶는데 은행 대출 좀 도와주요.”

“조현장, 도시 일자리를 좀 얻어 주요.”

..... 기도와 애원에 찬 조선족들의 눈길은 조만선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내가 험하고 굶주릴 때 얼마나 많은 조선족 농민들이 나를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가?)

며칠을 고민하고 사색하던 끝에 조만선은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김홍춘, 정석승과 손잡고 ‘신민현조선족경제무역총회’를 세우고 선참으로 로무송출을 시작했다. 1993년부터 2년 동안 무려 300여명에 달하는 신민현



만년의 조만선

의 조선족들을 한국, 싱가포르, 리비아, 로씨야 등 나라에 로무를 보냈다. 먼저 한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팔라를 집으로 보내오기 시작하자 대대 출국과 도시 진출의 불이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게 순풍에 돛 단 듯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94년 2월, 신민현의 100여명 조선족들의 출국 시간이 다되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 출국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장은 차일피일 구실만 대면서 로무 비용을 되돌려주

지 않았다. 농민들은 너도나도 조만선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문제의 심각성과 사명감을 깊이 느낀 조만선은 즉시 현공안국과 현공상국에 출근하고 있는 홍택룡, 김태현, 류철승, 김홍춘, 정석승 등과 같이 친진시 당구에 자리잡은 한국 로무회사를 찾아갔다. 처음에 한국측에서는 “이미 비자의 출국 시간이 지났소, 관련 책임자가 없소, 지금 돈이 없소...” 등등 구실을 대면서 오리발을 내밀었다.

조만선 일행은 당고구 공안국과 공상국에 제보하는 한편 5일간의 ‘화약 냄새’ 나는 담판을 거쳐 끝내 100여만원의 로무 비용을 되찾을 수 있었다.

조만선 일행의 처사에 너무나 감동된 농민들은 조만선 일행을 고급식당에 청한다, 사례금을 거둔다, 선물을 사준다 하면서 인사를 내려고 했지만 조만선은 “이것은 우리가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두 거절했다.

조만선의 선행은 이쁜이 아니다. 그는 신민현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를 일떠세우고 10여만원의 자금을 모아 왕청문중학교 운동장에 한일명장 랑세봉 기념비를 세웠다. 당시 흑룡강성 성장 진뢰가 몸소 ‘한일명장 랑세봉’이라는 제자를 써주

조만선, 한평생 백성을 마음속에 품다

전임 료병성 무순시 신민현 부현장 조만선의 생전 사업에서

다 협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조만선은 떨리는 손으로 16만자에 달하는 《안중근의사 학습자료》를 편찬하고 항일전쟁과 동북해방전쟁 시기 조선족 영웅인물사적을 편찬했으며 조선족 항일민요를 수집, 정리하여 소책자를 만들었다. 2018년부터 조만선의 병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인생의 종점이 멀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떨리는 손으로 꼬박 3년 동안의 품을 들여 근 20만자에 달하는 인생회고록 《나는 력사 흐름 속의 작은 물방울이었다》를 편찬했다. 책의 결말에서 조만선은 백전 조씨의 족보, 현재 가정 경제상황을 상세히 자신들에게 알려주었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었다. “나는 죽을 때 너희들에게 남겨 줄 아바트도 없고 저축통장도 없다. 호화로운 아바트에서 살고 자가용차를 몰고 다니는 너희들은 이런 행복이 모두 당과 정부의 덕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무수한 혁명선렬들의 피와 목숨으로 바 꾸어온 이 땅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이 나라의 법률과 사회의 공덕을 잘 지키고 형제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는 한 공산당원으로서의 조만선의 인생의 좌우명이었고 그의 평생의 실천이었다.

/ 리삼민특약기자